

■ (언론 동향) 2022.1.26. "한국농정" 보도

○ 하원오 전농 신임 의장 "농민 승리 세상 만들겠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신임 의장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023년까지 전농을 이끌 19기 임원단을 새롭게 꾸렸다.

전농은 지난 25일 충북 단양군에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단양청소년수련원에서 19기 1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재석 대의원 789명 가운데 641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전농은 18기 2차년도의 사업 및 결산 보고를 승인하고, 19기 임원을 선출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공간을 나눠 진행됐다.

이날로 임기를 마친 박홍식 전농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은 여전히 지속 중이며 이상기후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발생은 기후재난으로 불릴 만큼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차기 지도부는 농민기본법 입법화를 위해 현장 농민과 민중과 함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최영찬 빈민해방 실천연대 공동대표가 축사를,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이 연대사를 했다.

재석 대의원 641명 가운데 628명이 투표한 결과 기호 2번이 과반이 넘는 361표를 얻어 의장으로 하원오 후보, 사무총장으로 고창건 후보, 정책위원장으로 이근혁 후보가 당선됐다.

하원오 신임 의장은 “전농의 힘만으로 농업을 지키기에는 무리다. 우리 농업문제를 조금 더 농민 속으로 국민 속으로 들고 가겠다”면서 “언제나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투쟁해서 농민 승리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하원오 신임 의장은 부산시농민회 회장, 전농 부산경남연맹 의장, 전농 조국통일위원장, 전농 감사 등을 역임했다.

< 김태형 기자 >